

내신 100등이어도 괜찮아 -생 초짜 비법학사의 변호사시험 합격 이야기-

정 회 곤

- 충북 영동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



I. 들어가면서

‘내신 100등’

120명이 정원인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가 입학 첫 학기에 받은 성적입니다. 이제까지 ‘공부를 곧 잘하던’ 제가 맞닥뜨린 법학의 무거운 무게감은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학사경고를 간신히 면한 성적을 손에 쥔 20대 젊은 법학도는 가깝게는 유급,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에서 그렇게 점점 법학과 멀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이 글은 계속 제가 어떻게 법학의 무거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지나온 눈길을 다시 밝듯이 천천히 그리고 덩덤히 이어갑니다.

이야기는 제가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될만한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는 일찍이 ‘변호사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타 국가시험과 비교될 ‘변호사시험’만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자세임에도 다소 많은 수험생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이야기로 두었습니다. 둘째, 앞서 이해한 ‘변호사시험’의 특징을 바탕으로 도출한 이른바 ‘가이드라인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 방법을 문제형태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활간 정신과 신체 수련을 위한 제언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성된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글쓰기를 수년간 지속한 우리 수험법학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합격수기 제안이 왔을 때 다소 머뭇거렸던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글의 예상독자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벗어납니다. 합격수기의 예상독자는 분명합니다. 곧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도 그 길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는 글을 쓰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용기'를 얻어 가신다면 제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II. '변호사시험'이란 높은 어떻게 생겼는가?

1.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은 분명 법학입니다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고 평가의 방법은 '변호사시험'이므로 '변호사시험'은 꼭 알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일찍이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과목별 배점, 문제형태별 득점방식, 타 국가시험과 비교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만의 특징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차례로 상세히 후술하겠습니다.

2. 자격시험? 고등고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입니다. 다만 엄격한 법조인력 수의 통제로 고등고시의 성격도 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취득해야 할 점수가 있으며 더불어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 부담도 병존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49.35%로 50%의 벽이 무너져 결코 녹녹치 않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고등고시화를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의 특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법시험의 경우 2차 논술형 시험에서 만약 상법 과목이 과락 점수가 나올 경우 불합격이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상법 과목은 민사법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상법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얻더라도 민사법의 다른 과목인 민법과 민소법의 점수를 높게 얻는다면 민사법은 과락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시험'은 시험 과목에 대한 시간투자를 다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3. 득점방식은 어떠한가?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논술형은 다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나뉩니다. 선택형은 총 개수 150개, 총 배점 375점으로 정답 개수 당 2.5점씩 가감 없이 계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논술형의 득점방식입니다. 논술형은 원점수 득점이 아닌 표준점수로 득점하게 됩니다. 즉, 표준점수 변환을 통해 모든 수험생을 상대화시킨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논술형에서 중간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전체 수험생들 중 중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득점방식에 있어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고등고시적 성격이 모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법	배점	실질적 득점 범위	배점비율	실질적 득점 범위에 따른 비율
선택형	100	40~80(16개~32개)	6%	2.4~4.8%
사례형 1문	100	35~65	6%	2.1~3.9%
사례형 2문	100	35~65	6%	2.1~3.9%
기록형	100	35~65	6%	2.1~3.9%
형사법	배점	실질적 득점 범위	배점비율	실질적 득점 범위에 따른 비율
선택형	100	40~80(16개~32개)	6%	2.4~4.8%
사례형 1문	100	35~65	6%	2.1~3.9%
사례형 2문	100	35~65	6%	2.1~3.9%
기록형	100	35~65	6%	2.1~3.9%
민사법	배점	실질적 득점 범위	배점비율	실질적 득점 범위에 따른 비율
선택형	175	70~140(28~56개)	10.5%	4.2~8.4%
사례형 1문	150	50~100	9%	3%~6%
사례형 2문	100	35~65	6%	2.1~3.9%
사례형 3문	100	35~65	6%	2.1~3.9%
기록형	175	65~120	10.5%	3.9~7.2%
선택법	배점	실질적 득점 범위	배점비율	실질적 득점 범위에 따른 비율
사례형 1문	80	30~50	5%	1.8%~3%
사례형 2문	80	30~50	5%	1.8%~3%

[표-1] 변호사시험 과목별 배점 및 득점 범위와 총점과의 비율

4. ‘가이드라인 점수’의 도출

위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인 측면은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선택형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였고, 고등고시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논술형 공부를 위해 상기와 같은 실질적 득점 범위에 따른 비율로 과목별 공부시간을 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취득해야 할 기본적인 점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저는 ‘가이드라인 점수’라 명명하여 목표로

삼았습니다. 도출과정의 예를 보면, 작년 법무 발표에 따르면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889.91점이고 합격률은 약 50%입니다. 이는 논술형 시험 과목에서 모두 상위 50%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선택형의 정답 개수가 약 100개가 되어야 합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선택형에서의 250점, 나머지 논술형에서의 상위 50%에 상응하는 점수가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점수인 ‘가이드라인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형			공법·형사법 사례 기록, 민사법 사례 2문 3문	민사 1문	민사 기록	선택법
공법 27개	형법 27개	민사법 47개	50점	75	87.5	80

[표- 2] 제6회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 점수’ 예시

Ⅲ.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결국 제 공부의 1차 목표는 ‘가이드라인 점수’를 맞추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은 고득점이 아닌 ‘가이드라인 점수’를 맞추는 데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의 특성상 표준점수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는 것이 50점에서 6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10점을 더 얻는다면 당연히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1. 선택형 공부 방법

‘변호사시험’을 위시한 모든 국가시험의 선택형 공부 방법은 이미 다음과 같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 (1) 유니온, 아우라, 메가로이어스 등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수 회 반복하고 요약서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
- (2) OX문제집을 통해 정선지, 오선지를 익히는 방법
- (3) 회차별 시험지를 실제 시간에 맞춰 푸는 방법

이 중 저는 (3)의 방법을 통해 선택형을 공부하였습니다. 진도별 기출문제집과 OX문제집은 유사 문제가 한 챕터에 자주 반복되어 지루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최근 3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법시험, 법원행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실제 시험과 같은 제한 시간을 두어 공법, 형사법은 각 하루, 민사법은 이틀을 투자하여 이를 1개 세트로 1주일 1세트씩 꼬박 거르지 않고 풀었습니다. 1주일에 나흘, 하루에 약 40개의 문제를 푸는 것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는 정도가 뛰어나지만 절대적인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부가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또한, (3)의 방법의 경우, 회차별 해설집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우선 틀린 문제가 나온 파트를 체크하여 계속 반복하여 틀리는 파트는 기본서를 통해 해당 부분을 발췌독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일일이 정선지, 오선지를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꼼꼼하지 않아 불안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저에게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선택형의 공부 방법은 위 세 가지 방법 중 자기와 가장 맞는 방법은 찾아 꾸준히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 모르겠다면 모든 방법을 시도하여 가려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 논술형 공부 방법

가. 소의 구조를 숙지하자!

‘변호사시험’의 표면적인 존재의의를 상기한다면 의외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은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소(헌법소원 등)로서 다루어집니다. 소의 구조는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그리고 불복방법이 큰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요건들을 숙지한다면 쉽게 ‘가이드라인 점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 사례형 헌법 문제의 경우,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을 암기하는 것은 필수가 됩니다. 헌법 사례형에서는 숙지할 적법요건이 상기한 3가지의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량의 대비하여 득점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사법 사례형 민사소송법 문제의 경우에도 소의 적법요건을 따지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확정,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이 그 예시입니다.

최근에는 소가 종료된 후 권리구제방법인 불복방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의 변호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재심 등의 전형적인 불복방법 외에도 청구이의의소, 제3자의이의소 등의 특별한 불복방법이 문제화되는 것도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나. 판례를 키워드로 정리하자!

채점위원 한 사람당 채점하는 시험지의 양은 약 500부에서 600부에 해당한다는 전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1부당 채점시간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큰 시험이 짧은 채점시간으로 나뉜다는 것이 다소 가혹할 수 있지만 이는 철저히 키워드체크식 채점이 된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판례를 정리한 자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판례를 자기가 현출할 수 있을 문장이나 단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위계의 개념을 말할 때 판례의 키워드는 오인, 착오, 부지라는 단어만 보이면 됩니다. 방법은 판례집에 하이라이트를 하든, 공책에 기입하든, 워드 파일로 만들든 자기와 가장 맞는 방법으로 꼭 정리하여야 합니다.

다. 기록형은 ‘변호사시험’의 꽃이다!

앞서 말한 ‘변호사시험’의 존재 의의와 가장 잘 들어맞는 그리고 타 국가시험과 가장 비교되는 특징이 바로 기록형 시험입니다. 따라서 채점위원의 초점은 기록형 문제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 (1) 공법 기록형의 경우, 청구취지, 첨부서류, 입증방법 등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 등을 제외하면 사례형 문제와 유사합니다. 3학년 첫 모의고사인 6월에 공법 기록형을 접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공법 사례 공부 열심히 하다가 3학년 때 개설되는 공법 기록 수업을 통해 위 2가지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 (2) 형사법 기록형의 경우, 우선, 형사재판실무를 열심히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재판실무의 시험 방법인 검토보고서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에 출제되는 그것과 동일하며, 변론요지서 또한 검토보고서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법 기록형은 결론이 틀리면 배점이 극도로 낮아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형법 각론 판례(전단 무죄를 가려내기 위해), 형식 재판 관련 판례(면소·공소기각 사유를 가려내기 위해)에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역대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고 모범답안과 비교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 (3) ‘변호사시험’의 꽃이 기록형이라면 기록형의 꽃은 민사법입니다. 민사법 기록형은 저의 전략과목이기도 하였으므로 후에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

3. 전략과목을 만들자!

저는 3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에 이르러야 ‘가이드라인 점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점수’로는 합격을 확실할 수 없었기에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더 투자할 전략과목을 몇 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 전략과목 선택방법

전략과목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각 파트에서 하나씩 3개(전략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생각한다면 4개까지)를 선택하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양이 적은 과목을 순서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공법 파트에서는 헌법이 주류인 공법 사례 1문, 형사법 파트에서는 형법 각론 판례가 주류인 형사법 사례 2문, 민사법 파트에서는 기록형을 전략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나. 각 전략과목 공부 방법

- (1) 헌법 사례의 경우, 김유향 강사의 「헌법 300」이라는 핸드북을 달달 암기하였습니

다. 더불어 김유향 강사가 「핵심강의 헌법」에서 언급한 전문을 읽기를 추천하는 판례 약 50여개를 출력하여 틈나는 대로 전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 첫날의 긴장감과 예상보다 어려운 쟁점으로 52.75점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2) 형법 각론 사례의 경우, 판례의 결론이 명확하다는 점이 힌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옹당이 질식사 사건과 같은 총론 쟁점의 경우 살인죄 유죄라는 결론보다 개괄적 고의라는 근거가 더 중요하지만 예금통장의 사용절도 같은 각론 쟁점의 경우는 절도죄 성립이라는 결론이 더 중요하므로 주요 각론 쟁점을 결론-근거 순으로 판례를 숙지하였습니다. 이용배 강사의 「FOB형법」 교재를 수 회 반복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64.08점의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 (3) 민사법 기록형의 경우, 학교에서 개설되는 민사기록실무 과목을 통해 역대 기출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고사를 모두 직접 써본 점, 피고별로 청구원인을 먼저 쓰고 나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청구취지를 쓴 점, 빈출 쟁점(상계, 변제충당 등)을 나만의 기재례로 정리한 점, 민사재판실무 및 사법연수원 판례를 정리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민사법 기록형이 역대 최고 난이도를 보여줬음에도 장기간 단련된 기출 연습으로 떨지 않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실제 점수도 119.64점으로 고득점 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진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최신

판례의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이 역동적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머지않아 실무를 접할 예비변호사 수험생들에게 법학의 역동성을 단적으로 느끼기에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 공부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신판례는 3학년 여름방학부터 접해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7법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고, 강의의 도움을 받아 판례를 추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최신판례는 막연하게 새로운 법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중요하게 다루던 판례 법리가 반복되거나 이전 판례에서도 나온 요지에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최신판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접하고 판결요지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판례와 연결하여 익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소 결!

이른바 선 ‘가이드라인 점수’ 맞추기 후 전략 과목 공부 방법을 통해 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이라는 결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선택형 정답개수는 100개 가까이, 논술형 모두 상위 50%에 상응하는 점수가 나왔으며 전략과목 3과목 중 2과목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지 않음에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유효했습니다. 예전 사법시험 시절이었으면 꿈도 못 꿀 접근방법이지만 ‘변호사시험’은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공부합시다!

IV. 마음과 신체의 수련 방법

특히나 저와 같은 중하위권 수험생들에게 수험생활 동안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첫 모의고사인 6월에 저는 68등이라는 성적표로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계속된 불안함을 제거하는 것은 공부와 별개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도움 받았던 몇 가지 마음 수련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아프면 병원을 가자.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불안한 마음은 곧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를 간다면 더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은 불안하더라도 아픈 몸은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작은 병이라도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불안함을 잘 달래줄 수 있습니다.

2. 학교에 자주 얼굴을 비추자.

수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학교기피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따금 학교가 아닌 다른 공부 장소를 찾게 되지만 학교만큼 ‘변호사시험’에 유리한 장소도 없습니다.

일단, 학교는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입니다. 물론 과반수의 학생이 모교가 아닌 곳에서 시험을 치지만 학교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열람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는 시험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시험장에서 보는 동기들의 얼굴은 가장 효과 있는 활력제가 됩니다. 긴장감과 부담감이 가득한 시험장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은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가벼운 목례를 곁들이며 파이팅을 하는 동기를 보고 저도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특강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개 출제의원급 교수님들

이 초빙하는데, 3회 이상 출제에 들어가신 정도의 교수님들이 읽는 시험 트렌드는 신림동의 유명 강사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시험지에 현출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중앙대 황일호 교수님 형사법 기록 특강, 이화여대 나현 교수님의 민사법 기록 특강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이렇게 지면을 빌려서라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3. 재수·휴학 생각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실력이 미천하다하여 ‘변호사시험’을 한 번 더 봐야하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합격의 길은 절단됩니다. 초시 합격의 포기는 현재의 동력을 상실시키며, 더군다나 ‘변호사시험’은 현실적으로 수능이나 사법시험과 같이 2번을 본다하여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 또한 많은 휴학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초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불안함이 휴학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은 중하위권 수험생들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휴학은 미래에 대한 준비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당장의 과업을 미루거나 도망치는 측면이 더 큼니다. 생경한 후배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곤욕은 생각보다 크고, 이미 변호사가 된 동기를 보는 마음도 썩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다.”는 격언을 책상머리에 붙여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에게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준 주변의 만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4. 평일에 하루는 늦잠을 자고 주말에 하루는 놀자!

공부는 분명 체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체력은 전장인 시험장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수험생활은 전쟁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등교, 오후 12시 하교라는 기본 루틴을 바탕으로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는 유명 맛집을 다니고, 예능 프로를 보고, 동기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모든 과목의 답안을 완벽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루틴에서도 합격에 충분한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V. 나오면서

말 그대로 ‘쏟 살’ 같던 로스쿨 3년이었습니다. 좌절감에 몸서리친 시작이었지만 ‘변호사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수험 태도를 가졌던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른바 ‘내신 100등’의 합격 비기의 요지는 ‘가이드라인 점수’를 맞추는 공부, ‘가이드라인 점수’를 맞춘 뒤 고득점을 노리는 몇 과목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공부입니다. 꼭 6월, 8월, 10월 3차에 걸친 모의고사의 성적표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 점수’에 미치지 못한 과목을 먼저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같은 10점을 올리더라도 40점에서 50점에 도달하는 것이 50점에서 60점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농담조로 “이 놈, 압삽하게 공부 했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삽함을 느끼는 것은 저의 상대방이지 제 자신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험태도는 ‘전략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는 내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동질감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의 ‘변호사시험’의 고통과 시험이 끝나고 발표까지의 애틁한 초조함이 아직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도움 되는 말들을 이 글에 담고 싶었고 천편일률적인 합격수기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줄필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충분히 ‘변호사시험’이라는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학교 선생님, 동기, 선·후배들과 같이 한다면 배가 됩니다. 저 또한 로스쿨 과정이 없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동기들이 없었다면 그 3년마저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로스쿨 생활동안 그들과 부대끼며 ‘같이’ 고비를 넘기는 동행의 가치를 느껴보십시오. 인생에서 또 하나의 즐거운 기억이 될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활 동안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신 부모님과 동생, 책값 하라며 늘 주머니에 용돈 쥐어주신 큰엄마, 큰아빠, 성욱이형, 시험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맞이해주신 경북대학교 권오걸 교수님, 언제나 아버지 같이 달래주신 지도교수 이달휴 교수님, 너무나도 즐거운 로스쿨 생활을 같이 해준 우리 육룡이 병석이형, 지식이형, 창흠이형, 준기형, 선곤이형, 나랑 밥 먹는다고 고생한 영희,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의협심과 단결력을 보여준 로열 학생회, 내 청년의 꿈을 늘 기억해주던 주술사, HYPERION 친구들, 이렇게 합격수기의 기회를 준 고시계 편집장님께 모두모두 무한한 감사의 말을 올리며 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